초록우산

2021 WINTER

214th




Doctor





히어로(영웅)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 의미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은 대개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지녀서 선량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 악당을 물리치고 해결해주곤 합니다.

과연 이런 능력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로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나타나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주는 사람, 잠재 능력을 찾게 하고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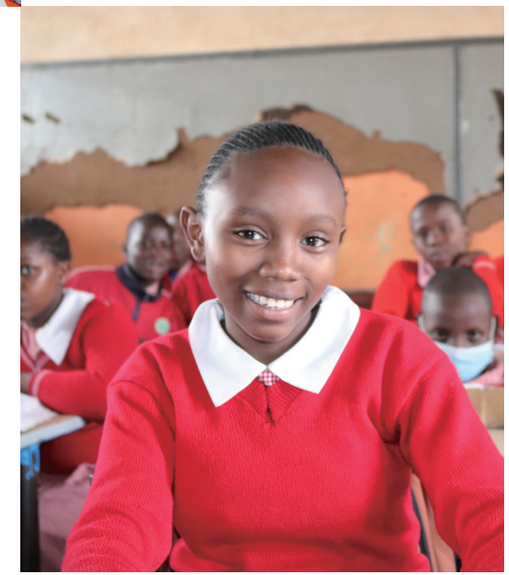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준 '히어로'가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히어로'가 되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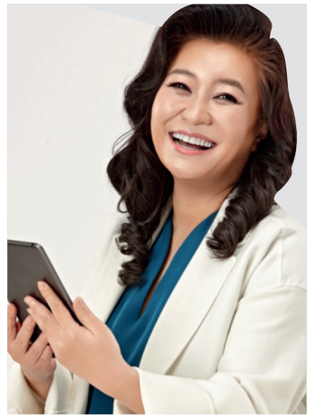
아이들, 특히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야말로 '히어로'이십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이들의 '슈퍼히어로'가 되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으라차차

나의 슈퍼히어로

2021 WINTER 214th

통권 제214호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발행인** 차흥봉 **편집인** 이제훈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TEL.** 1588. 1940 **FAX.** 02. 756. 4256 **기획** 서울문화사 **TEL.** 02. 791. 0791 **디자인** DESIGN BY:SOOP **TEL.** 02. 3443. 0924 **사진** Studio DA **TEL.** 02. 517. 7718 **인쇄** ㈜일흥피앤피 **TEL.** 1588. 4084 **| 편집위원 | 기획·편집 홍보실** 이서영·정보미·강나현 **기획·디자인** 서울문화사·DESIGN BY:SOOP **나눔마케팅본부** 손혜인 **복지사업본부** 정수진 **국제개발협력1본부** 박동석 **국제개발협력2본부** 전단비 **후원서비스본부** 백승숙 **아동복지연구소** 윤수경 **| 자문위원 |**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이창구 서울신문 기자·서범석 세명대학교 교수·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최현호 고려대학교 학생·채정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원·황미경 동방종합건재 대표·이세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신우중 넥스트라운드 AE

소식지 〈초록우산〉에 좋은 사연과 관심 어린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storypr@naver.com
후원 문의 | 전화 1588. 1940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Theme

08 **프롤로그** 으라차차

10 너는 나의 슈퍼히어로

16 아이들이 직접 뽑은
'우리들의 우상'을 소개합니다
–오은영 박사

1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30년의 발걸음

22 지구 반대편,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

26 한국의 히어로를 소개합니다!

28 **에필로그**

30 백은하의 꽃잎 그림 에세이

Story

32 **만나고 싶었어요!**
〈보이스〉 마진원 작가

36 2021 나눔음악회
'우리함께 희망으로' 현장 스케치

38 제6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To 나의 세잎클로버 친구 하갈이에게

40 메타버스 '초록우산 어린이랜드'로
놀러 오세요

42 저는 지금 지구를 구하는 중입니다

46 들리나요? 아이들의 목소리

48 한화생명 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

News

52 일상스타그램

54 Green News

57 정기후원신청서

58 독자후기

*본 소식지에 실린 인터뷰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놀자놀자

어린이들의
휴식처가
되어주세요



너는 나의 **슈퍼히어로**

올해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옹호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10주년이기도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제20차 아동복지포럼 개최를 통해 아동옹호활동을 위한 노력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이 직접 선정한 슈퍼히어로를 수상하는 '초록우산 어워드'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히어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도와주는 히어로,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해준 히어로,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의 대상이 없음을 규정해준 히어로, 우리 모두를 귀하고 소중한 금쪽이로 바라봐준 히어로까지…. 아동들의 슈퍼히어로는 블록버스터 영화 속이 아니라 아이들의 곁에서, 우리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슈퍼히*어로는?





PART 1

〈초록우산 어워드〉

어린이들의 진정한 히어로를 만나다

지난 가을 마포구에 위치한 구름아래 소극장에서는 아이들의 슈퍼히어로를 선정하는 '초록우산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초록우산 어워드'는 아동들이 직접 아동권리 증진에 큰 역할을 한 수상자를 선정한 첫 번째 아동권리 시상식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 129명으로 구성된 아동심사위원단이 각 분야별 후보군을 직접 추천한 뒤 2021년 8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에서 총 2,787명의 아동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투표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동권리를 지켜주는 슈퍼히어로를 수상하는 특별한 시상식으로 아동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동 심사위원단이 직접 디자인한
'초록우산 어워드' 트로피

인물 **우리들의 우상**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아동 심사위원단 심사평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진심을 담아 상담해주고, 어린이가 잘 자랄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과 책임을 알려줘서 고마웠어요."

물건, 공간 **덕분에 내 입이 웃상**

옐로카펫

*아동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아동 심사위원단 심사평

"옐로카펫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운전자들도 어린이들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보호받는 기분이 들어요."

기업, 단체 **아동을 위한 노력이 일상**

풀무원

*바른먹거리 캠페인&무상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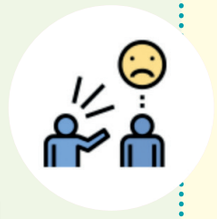
아동 심사위원단 심사평

"노래를 부르거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밥을 맛있게 먹는 법, 건강한 밥상을 소개해줘서 유익했어요!"

법, 제도, 정책 **더 나은 세상**

자녀 체벌 금지법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입니다.



아동 심사위원단 심사평

"그동안 아이를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매를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좋은 법이라서 추천해요."

미디어콘텐츠 **내 인생 최고의 영상**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육아 전문가들이 부모들에게 맞춤형 육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채널A의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심사위원단 심사평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무섭게 혼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원인을 같이 찾아봐주고, 부모님들도 잘못된 양육방식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Theme

PART 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들의 히어로가 될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어린이들의 히어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적극적인 아동옹호활동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동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재단의 지난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놀권리 증진

#놀이터를 지키자 #영세 놀이터 국가지원책 마련
#아동이 만드는 '어디든 놀이터 오픈' #놀이가 지속되는 지역사회 구축



통학로 안전

#옐로카펫 확대 및 제도화 #교통사고 예방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아동이 안전한 마을 구축



폭력 예방 및 근절

#아동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민법 915조 자녀징계권 조항 삭제, 체벌 금지#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확충
#성매매 연루된 모든 아동, 피해자로서의 지위 부여



참여권 실현

#미래에서 온 투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아동이 만드는 정책·공약
#아동의 목소리가 경청되는 사회



아동 생존권 및 발달권 보장

#집다운 집으로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 지원 대상 아동 포함 #아동주거빈곤 가구 우선 지원제도 마련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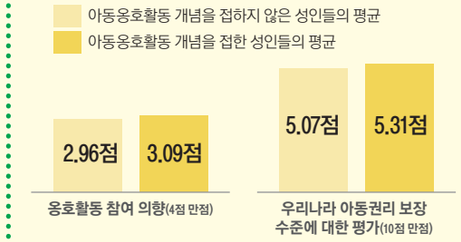
〈제20차 아동복지포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옹호활동 성과연구 주요 결과

*설문조사 결과

아동옹호활동에 대한 인식 향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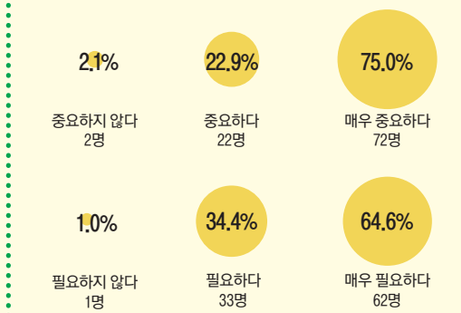
아동옹호활동 개념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의 경우, 아동옹호활동 참여 의향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 성인 1,000명 대상 설문

아동옹호활동 참여 경험 활성화 필요 제언

아동옹호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아동은 아동옹호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 아동 96명 대상 설문

*초점집단 면접 및 개별 심층면접 결과

아동, 사회, 재단의 변화 발견

1 아동의 변화

* 옹호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시민의식의 향상
* 다른 아동의 권리 존중
* 아동의 자신감과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성 향상

2 사회의 변화

*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 지역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
* 아동옹호활동을 함께할 파트너 증가

3 가족의 변화

*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 가족이 아동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임

4 협력단체의 변화

* 협력단체 실무자의 아동에 대한 관점 변화
* 아동옹호활동 기획자로서의 역량과 실무 역량 향상

5 재단의 변화

*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포지셔닝
* 아동권리기반 접근의 적용: 사업과 활동에 아동옹호 요소 반영
* 직원 및 조직의 성장: 아동권리기반 사업 역량 내재화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옹호활동 성과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21



아이들이 직접 뽑은 '우리들의 우상'을 소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시상식 '초록우산 어워드'에서는 2,787명의 아동이 뽑은 '인물'부문 '우리들의 우상'의 수상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입니다. 사람의 뇌 기능과 뇌에서 비롯된 생각, 감정, 행동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을 전문으로 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균형 있게 획득하면서 마음까지 편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치료합니다.

Q 전국의 아동심사위원들이 직접 뽑는 '초록우산 어워드'에서 '우리들의 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음 안에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에 바람이 꽉 차서 붕 뜨는 기분!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아요. 아이들은 정직해서 본인이 느끼는 대로 표현해요. 그런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면서 저를 뽑아주었다니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엔 '우리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세요', '부모님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세요'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힘든 무거움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즐거운 무거움이에요!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입니다!

Q 박사님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알아차리시는데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가장 표면에 있는 부분부터 내면까지 보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양파로 예를 들면 겉껍질부터 속까지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한다고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표현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비결입니다.

Q 아이와 대화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아동과 소통을 잘하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보호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려면 평소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공감받는 경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모가 무엇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해도 '아,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소중한 분들이지' 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요.

Q 아이와의 소통이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소통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데요. 아이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이 되지만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어렵기도 합니다. 아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 만큼 저와 부모, 아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죠. 치료했던 아동 중에 발달장애가 있는 한 아이를 오랜 시간 만났는데, 다 큰 청년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어요."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했죠?" 하면서 주섬주섬 편의점 봉투에서 초콜릿과 빵을 꺼내더라고요. 그걸 받으니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부모님이 수많은 걱정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직장에 다니고 월급으로 선물을 가져오다니! 감동을 받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 초콜릿은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Q 이번에 받으신 상이 '우리들의 우상'인 만큼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들에게 '히어로'이십니다! 어린 시절 오은영 박사님의 히어로는 누구였나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면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할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종대왕님은 한문을 아셔서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백성들을 생각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주시다니 고맙고 훌륭한 분이시죠. 한글이 있기에 우리는 누구나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Q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공부를 잘하는지의 여부, 경계적인 여건, 나이와 관계없이 '아이'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인 것 같아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30년의 발걸음

후원자님의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누군가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히어로일 수 있습니다. 30년 전, 각자 다른 이유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셨지만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눔을 실천하신 후원자님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장동하 후원자님

"아들이 더불어 살아갈 더 나은 세상"

제가 30년 전에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 '내 아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싶더군요.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결국 제 아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아들이 자라서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소득의 1%를 기부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들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기부를 시작했던 동기가 '바로 너'라고 말을 하자 흔쾌히 동참했답니다.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 이름으로도 후원을 신청해서 3대가 함께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었네요.

남을 위한 기부로 시작했지만 30년의 후원은 결국 제 삶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기부금을 늘리는 것을 생활화하다 보니 저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훨씬 높아졌어요. 나눔을 통해 제 삶이 훨씬 충만해져서 나이가 들어 더 많은 기부를 하는 삶을 꿈꾸고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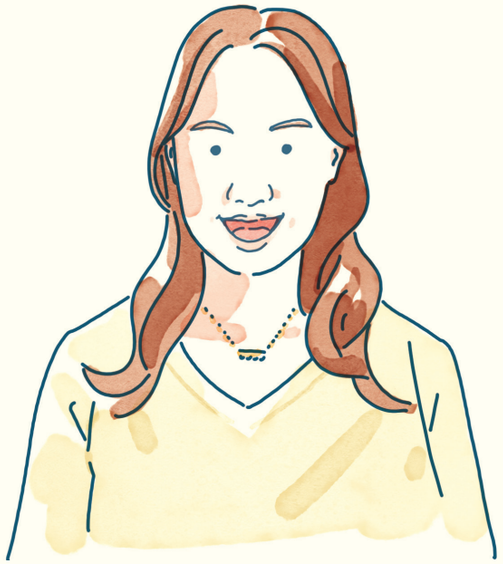


하순희 후원자님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

3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다니던 교회의 소모임에서 함께 선한 일을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유학생이었지만 멤버들이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면 결연아동을 만나러 가고 선물도 전해주곤 했었네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제 자녀들과 함께 매년 결연아동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돌보시던 친할머님의 인자하신 얼굴과 무엇이라도 대접해주시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가고 중학교 때도 종종 방문하였는데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는 연락이 잠시 끊겼었네요.

다 큰 청년이 된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할머님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듬직한 청년이 되어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해주었네요. 그 후로도 같은 교회에 다니며 가깝게 지냈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후원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30년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앞으로 제가 살 날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더더욱 남은 시간 동안 남을 위한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위로”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 때마다 느꼈던 감정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동안의 봉사와 나눔 활동이 어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신 것 같아요. 처음 후원을 시작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제 아이가 생기고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다 보니 그때 어머니가 느끼셨던 감정을 저도 이제 느끼고 있어요.

최윤정 후원자님

사실 제가 5년 전에 암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큰일을 겪고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스스로 위로를 받은 덕분인 것 같아요. 저를 토닥토닥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어요. 분명 어려운 상황에 있을 제 결연아동도 항상 긍정적으로 편지를 보내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감정을 느꼈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후원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려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의 30년도 기대가 되네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을 아이들을 위해”



어릴 때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배움도 내려놓고 돈을 벌기 위해 어린 나이에 상경을 하였죠.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공장에 취직한 뒤 저 또한 집안의 동생들과 사촌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저는 ‘나처럼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참 보람차겠다’라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서 후원자님

후원을 결심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고, 그 즈음 현재의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30년 전에 아이들을 돕고자 했던 그 결정이 오늘날 제가 성공하게 된 지름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음에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결심했던 그 당시의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큰 후원이 아니기에 미약하게 내민 제 손길이 창피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오랜 시간 지탱하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덕분에 도리어 제가 후원을 받아온 30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 반대편,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



어린이재단 케냐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아위노 냐몰로 아위노(Awino Nyamolo Awino)

어린이재단 케냐에서 활동하는 아위노 씨에게 지난 2년은 절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홍수와 가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라는 큰 시련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냐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특유의 단결력과 회복력을 보이며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위노 씨는 이러한 케냐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외치는 아이들의 의지를 널리 소개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살피며 예술적 재능을 끌어올리는 것. 아위노 씨는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꿈을 꿉니다.

Q 케냐의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코로나19 상황도 어떤지 궁금해요.

아위노 케냐에서는 내년 8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아직까지는 평온하지만 각종 정치 집회가 열리면서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해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최근에 해제되었습니다.

Q 어린이재단 케냐의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어떻게 일하기 시작했나요?

아위노 저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아이들 각자가 가진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재단 케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되기로 했죠. 어린이재단이라는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내외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실제로 해보니 어떤가요?

아위노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도록 도울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요! 마치 빗속에서 빛을 발산하듯이, 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이들에게서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Q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있던 지난 2년간 어린이재단 케냐도 어려움이 많았죠?

아위노 케냐가 홍수, 가뭄, 사막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입었던 피해를 회복해갈 무렵,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위생용품을 보급하고, 생계를 잃은 가구들에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을 철저히 했지만 결국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30일 만에 완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지난 2년이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계속 극복해나가는 중입니다.

Q 어린이재단 직원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위노 매 순간이죠. 차일드펀드에서 일하며 가난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Q 슬프고 무력했던 순간도 있었죠?

아위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투르카나 사막에 메뚜기 떼가 창궐해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땐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초토화된
옥수수 밭을 바라보며 다음 식사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슬픈 눈빛이 너무 애잔하고
슬펐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린이재단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목표 둘 다요!

아위노 저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려나가며, 더 많은 지지와 후원을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시 근교의 비공식 거주지에 사는 10대들이 재능을 펼치도록 저널리즘과 사진 동호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Q 당신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위노 나이,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넬슨 만델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죠.

케냐의 어린이들은 1년 만에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5학년이 된 10살의 엘비스, 12살로 7학년이 된 아디오나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신이 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2km를 걸어가야 하고, 등교 전 집에서 사용할 물을 길어다 놓아야 하는 수고쯤은 기꺼이 감수할 만큼요. 노는 것만큼이나 공부가 즐겁다는 케냐의 아이들은 요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디오나와 엘비스.

Q 케냐의 코로나19 상황도 나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요?

엘비스 오랜만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행복해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면 2km를 걸어 학교에 가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양말과 셔츠를 빨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숙제를 하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잠들어요.

아디오나 학교에 잘 다니고, 집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침 일찍 공용 수도에서 물을 길어온 다음 학교로 달려가요. 학교에서는 공짜로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방과 후에는 주로 저녁을 준비하는 등 집안일을 하고 숙제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Q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엘비스 공부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 정말 행복해요.

아디오나 학교 과목 중에는 수학이요.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데, 무엇보다 다섯 살인 여동생하고 같이 놀 때 제일 좋아요.

Q 만약 샘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엘비스 나를 유명한 학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훌륭한 축구선수도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아디오나 음…. 무쿠루의 아이들을 돕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소원은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할 거예요.

Q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목표가 궁금해요.

엘비스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사업도 하고, 은행 계좌와 자동차, 집도 갖고요. 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디오나 저는 아픈데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Q 우리 멋진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웅'은 누구인가요?

엘비스 우리 엄마와 아빠요. 우리에게 음식과 교육과 좋은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아디오나 제 영웅은 루시 나타샤라는 목사님이에요. 여성분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연설을 해주시거든요.

영웅, 감동을 주는 존재

한국의 히어로를 소개합니다!

어릴 적 TV로 만화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히어로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이런 영웅들의 활약상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며 악당을 물리치길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평화에 큰 감동을 받기도 하죠. 감동과 공감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얻은 우리나라의 슈퍼히어로들을 소개합니다.

홍길동

허균의 고전소설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슈퍼히어로 홍길동은 괴력과 분신술, 퇴마술, 변신술에 능한 의적입니다. 600kg이나 되는 바위를 들고, 허수아비로 분신을 만들어 탐관오리를 골탕 먹이기도 하죠. 날씨를 조종하기도 하고, 귀신과 요괴를 퇴치해 백성들을 구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연산군 때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보트 태권V

키 30m, 힘 23만 마력, 로켓 주먹과 광자력 빔을 가지고 있는 로보트 태권V는 조항리 화백, 김청기 감독, 지상학 각본의 애니메이션에 1976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당시는 태권도가 붐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어린이가 태권도를 배우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로봇 등록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기 장수 우투리

우리나라 각 지역에 전해지는 아기 장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로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영웅이죠. 지리산에 살던 가난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우투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고 앞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적군에게서 백성들을 지키다 전사하게 됩니다.

각시탈

1975년 허영만 화백이 인기리에 연재한 만화 〈각시탈〉의 주인공으로 2012년 KBS 2TV에서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를 고발하던 주인공이 유명한 독립운동가 각시탈을 잡게 되지만 그가 자신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신 각시탈이 되어 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머털도사

이두호 화백의 작품으로 1989년 MBC에서 제작한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누덕산의 누덕도사에게 도술을 전수받는 머털이는 머리털을 세우면 무엇으로든 변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누덕도사의 라이벌 왕질악의 제자 꺽꿀이와의 결투에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흙꼭두장군

김병규 작가의 동화 〈흙꼭두장군의 비밀〉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1991년 MBC가 제작한 설날 특선 만화의 주인공이죠. 첫 방영 당시 27.3%라는 시청률이 나왔고 명절마다 꾸준히 재방영되며 새해 아침부터 TV 앞에서 우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죠. 2012년 전 만들어진 왕릉에서 발견된 왕릉의 수문장 흙꼭두장군이 도굴꾼들에게서 왕릉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슈퍼영웅 뽀로로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뽀로로가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극장판으로 개봉한 '슈퍼영웅 뽀로로' 시리즈는 썰매 왕국에서 모험을 하고 공룡과 싸워 지구를 구하기도 합니다. 악당에게는 사과를 받고 또 사정을 들어본 다음 도움을 주기도 하죠.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그대는
슈퍼히어로!

Theme



고독할 때 함께
있어주고
질문하면 답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지금은 네가
그리고 사랑이 되어줄 수는
있으니... 감사하다.



백은하 작가
꽃잎그림작가로
알려져있으며, 그림과
글, 사진 콜라주
등의 작업을 합니다.
www.baekeunha.com

Story

우리 곁에 언제나



만나고 싶었어요 〈보이스〉 마진원 작가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드라마 〈보이스〉. 누군가는 무서운 드라마로 기억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을 다루며 '사람 살리는 일'을 드라마로 전하는 마진원 작가를 만났습니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록우산〉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보이스〉의 작가 마진원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좋은 인연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Q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신 건가요?

〈보이스〉를 집필하기 위해 취재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 사례를 많이 봤어요. 피해자였던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봤고요. 매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출판사에서 또 제안을 해주셔서 운명처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이스〉 시즌4는 가족범죄가 주제예요. 기본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고 책을 낸 뒤 그 책의 인세를 재단에 후원하며 범죄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Q 네 번째 시즌이 마무리되었어요. 드라마 〈보이스〉 기획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드라마 작가로서 경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쓰고 싶었어요. 초동수사가 시작되는 곳인 112신고센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112신고센터에 방문해 취재를 하고 싶다며 부딪혔죠. 부탁도 드리고, 매달려도 보고 그랬어요. 정말 다행히도 인천경찰청에서 취재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신고 전화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금요일 밤, 20분 정도 112신고센터에서 참관할 기회를 얻었어요. 구석에 없는 듯이 앉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관 분들이 귀가 잘 들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오는 전화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귀가 아주 잘 들리면 어떨까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드라마 〈보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작가로 일하다 보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생각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돼요.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영상 공부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보고, 읽고, 쓰고, 두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땐 청하면서 반드시 꿈을 이루세요.

Q 직접 취재를 하신다는 게 참 놀라워요. 취재와 더불어 더 많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수집하시나요?

아이템을 잡을 때는 만화, 영화, 사람들 이야기, 커뮤니티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요. 드라마 〈보이스〉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보고 들은 이야기보다는 직접 발로 뛴 취재가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경찰청에서 취재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세세한 부분까지 드라마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셨어요.

Q 드라마 각본을 쓰시면서 마음이 아픈 사건을 많이 접하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범죄, 사건사고들을 직접 취재한다는 걸 알게 되시면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은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 드라마 자문위원 분들의 밝은 에너지를 보면서 치유를 하고 또 힘을 얻곤 합니다. 범죄사건을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텐데 전문적인 직업의식으로 일을 하시고, 또 그걸 극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잘 치유하고 있습니다.

Q 후속 작품의 집필 계획이나 언젠가는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살짝 힌트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른 뒤에 애니메이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옛날부터 만화가가 꿈이기도 했거든요.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무언가 상징화를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애니메이션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감성이 안 될까요?(웃음) 후속작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스〉 시리즈는 언젠가는 시즌5로 또 선보일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Q 이번 〈초록우산〉의 주제가 '슈퍼히어로'인데요. 작가님께 슈퍼히어로는 누구인가요?

음, 어렸을 때 저는 미드 〈소머즈〉를 보면서 자랐어요. 귀가 아주 잘 들리고, 달리기도 잘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잘하는 초능력자였는데, 어린 마음에 그분이 정말 영웅처럼 보였어요. 원더우먼만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한 캐릭터지만 저는 정말 좋아했죠. 요즘 제 생각에 '슈퍼히어로'란 생활의 달인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내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점도 많고요. 우리 사회에서 슈퍼히어로란 본인의 일을 꾸준히 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작가가 꿈인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작가는 사람들에게 고단했던 하루를 잊게 하기도 하고,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작가가 꿈이라면 열심히 해서 꼭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작가로 일하다 보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생각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글로 남기게 되는데 쉽지 않지만 참 많은 도움이 돼요.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영상 공부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보고, 읽고, 쓰고, 두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땐 청하면서 반드시 꿈을 이루세요.



Story



2021 나눔음악회
‘우리함께 희망으로’







첼리스트의 꿈을 연주하는 소년 민호는 지난 10월, 감동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드림오케스트라로 처음 첼로를 접하게 된 민호는 초록우산 아이리더로서 지원을 받으며 첼리스트의 꿈을 키웠습니다. 11년간 재단과 함께 꿈을 키워온 민호는 나눔음악회를 통해 후원자 합창단과 멋진 공연을 하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어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과 응원을 다시 전하고 싶다는 민호의 무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민호가 멋진 연주를 펼친 2021년 나눔음악회 ‘우리함께 희망으로’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2021년 나눔음악회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아이리더를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후원자님들과 함께 하며 감사의 마음도 전하였습니다.
K-POP 아티스트와 아이리더의 공연, 후원자 합창단 ‘함께그린 합창단’과 아이리더의 합동 공연, 랜선관객 인터뷰 등 따뜻한 감동의 무대는 실시간으로 음악회를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2021 나눔음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자리한 모두에게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감동적인 무대를 마친 민호는 나눔음악회를 ‘마침표’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마침표를 찍듯, 또 다른 마침표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민호가 세계적인 첼리스트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초록우산 아이리더가 말하는
2021 나눔음악회!

정민호 아이리더

“나눔음악회는 전기이다.”

저에게 나눔음악회는 ‘전기’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번 나눔음악회 때 받은 응원과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다음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 잘 간직할게요. 이번이 끝이 아니기에 항상 관심 기울여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은중 아이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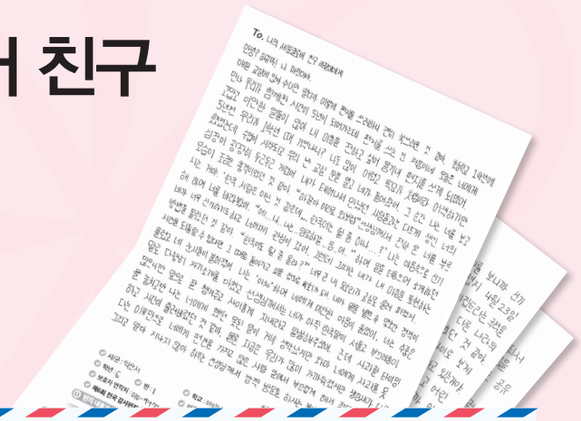
“나눔음악회는 희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국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나눔음악회를 통해 기회를 엿보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1 나눔음악회를 놓쳐셨다면
지금 바로 보러가기

Story

To. 나의 세잎클로버 친구 하갈이에게



2021 제6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감사편지

2016년부터 시작된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이 올해로 6회를 맞이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7,365개 학교에서 무려 54만8,949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3개월에 걸쳐 1차부터 3차까지 꼼꼼한 심사를 거친 결과 본상 218명과 장려상 4만6,074명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높은 참가율을 보인 학교를 대상으로 단체상과 우수상을 시상해 각 학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중 우수상을 수상한 20개 학교에는 '초록우산 땡큐트럭'이 방문해 전교생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제6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시상식은 낙엽이 아름답게 내리는 11월 마지막 주에 열렸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이 함께 럭키드로에 참여해 시상식의 열기를 더했으며, 특별히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감사편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나누었습니다. 감사편지라는 따뜻한 경험을 공유한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한 감동을 주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솔직하고 따스한 우정 고백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6년째 우정을 나눠온 친구 암로하갈에게 편지를 쓴 김마린 학생이 '제6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참가자 수를 기록한 이번 감사편지 공모전은 부모님, 선생님, 친구를 향한 진실되고 감동적인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소통이 귀한 시대, 정성 어린 감사편지 한 장이 마음을 녹여주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나의 세잎클로버 친구 하갈이에게

안녕, 하갈아! 나 마린이야.

이렇게 편지를 쓰려 하니 괜히 쑥스럽다. 함께한 시간이 5년이 되어가는데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오늘은 너에게 고맙고 미안한 일들이 많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용기 내 편지를 쓰게 되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1학년 때 기억나니? 나와는 다르게 생긴 너의 모습이 조금은 충격이라 신기한 눈으로 너를 바라봤지. "에…. 나…. 나는 암로하갈…. 음…. 어…."라고 네가 말을 더듬으며 자기소개 했었지. 그때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한국어도 할 줄 몰라?" 너무 큰 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돼. 내가 말을 내뱉은 후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네 눈시울이 붉어졌어. 나는 '아차' 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내 실수가 계속 생각났는데 제대로 사과를 못 하고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아.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편견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23일. 그날 네 생일을 기념해 부모님께서 학교에 방문하시고 이집트 국적인 너희 가족과 나라에 대해 소개해주셨던 거 기억나?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며 너에 대해 좀 더 알아가게 되어 기뻤어.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네가 부모님과 아랍어로 대화하는 걸 보고 엄청 놀란 거 알아?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쓰는 네가 정말 멋지면서도 두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느라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니 안쓰럽기도 했어.

너에게 했던 사소한 말과 짜증이 떠오르며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러고 보니 이집트의 문화가 달라서 속상한 적도 있었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문화라서 함께 컵라면이나 젤리를 먹지 못했을 때 말이야. 너도 속상해했고 우리만 먹는 게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 너와 친구가 되면서 대한민국과 다른 이집트 문화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된 것 같아. 이제 졸업을 앞둔 6학년이 되었네.

하갈아! 짧고도 긴 시간 속에서 이런 추억들이 우리 사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아닐까? 이집트라는 나라,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 너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가 내 눈에는 참 멋져.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게 너의 가장 큰 매력이야.

너는 나에게 없어선 안 될 스페셜하고 좋은 친구야. 잊지 마! 하갈아, 그동안 수고했고 힘내!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사랑하고 감사해! 파이팅!

2021년 5월 23일 너의 베스트프렌드 마린이가

Story

메타버스

‘초록우산 어린이랜드’로 놀러 오세요

“아동정책 공약이 뭐지? 우리를 위한 정책인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네…. 평소에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없을까?” 메타버스 ‘초록우산 어린이랜드’에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해보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아동들이 직접 만든 아동정책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 공약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더 많은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 ‘초록우산 어린이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동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동이 많이 모여 있는 로블록스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로블록스에 마련된 ‘초록우산 어린이랜드’는 ‘폭력·범죄’, ‘놀이·여가’, ‘교통안전’, ‘기후환경’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아동들이 글과 그림으로 해결 방법 등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인데요. 각 주제별 공간 속에서 미니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건설해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인 ‘초록우산 어린이랜드’로 대통령 후보자들을 초대하여 아동이 직접 제안한 아동정책 공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랜드에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로블록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랜드’를 검색해보세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로블록스 ‘초록우산 어린이랜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만 7~18세 대한민국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아동정책보고서’로 제작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메타버스로 전달하며, 내년 1월 ‘초록우산 어린이랜드’ 아동공약발표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초록우산 로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하는 일과 미래 세대 교육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초록우산 생각나무
초록우산 생각나무는 교통안전, 기후환경, 폭력·범죄, 놀이·여가, 대통령 후보에게 한마디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공간별 게임 미션을 해결하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아동의 의견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공간이에요.





초록우산 생각나무_대통령 후보에게 한마디
마지막은 대통령 후보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남기는 공간이에요.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후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초록우산 마을
초록우산 마을은 아동이 살고 싶은 행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건축 도구를 활용해 직접 마을을 건설해보는 공간이에요.

저는 지금 지구를 구하는 중입니다

2018년 폭염에 이어 2019년엔 가장 많은 태풍이 휘몰고 간 지구. 끝인 줄 알았는데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엎으며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겨레신문과 함께 '어린이 기후일기'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기후일기에는 어떤 그림과 생각이 적혀 있을까요? 기후환경을 걱정하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자매 / 김래아, 김한아





제목: 지구를 지키자!!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대요.
주말에 아빠와 공원에 가서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만들어내는
쓰레기와 온실가스가 동물들의 살 곳과 먹을 것을
빼앗았어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휴지도 아끼고, 지구도 아끼고 / 조성일



저는 부산에 사는 조성일이라고 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일회용 휴지를 쓸 일이 참 많아요. 체육을 한 뒤 땀을 닦을 때, 손 씻고 물기를 닦을 때, 물을 흘렸을 때, 눈물을 닦을 때 등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휴지를 만들고 없애는 과정에서 대기와 토양이 오염되고, 두루마리 휴지 한 개를 만드는 데 30년 된 나무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휴지를 아껴 쓰고 있고요. 평소에 손수건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닦을 때, 물을 흘렸을 때, 땀을 닦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에게 휴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알려줘요. 여러분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기 / 박민정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기후 교육을 들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기후위기의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잘하는 거예요. 가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음료를 먹고 집 앞에 아무렇게나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 배운 대로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를 잘 실천할 거예요!



산을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 이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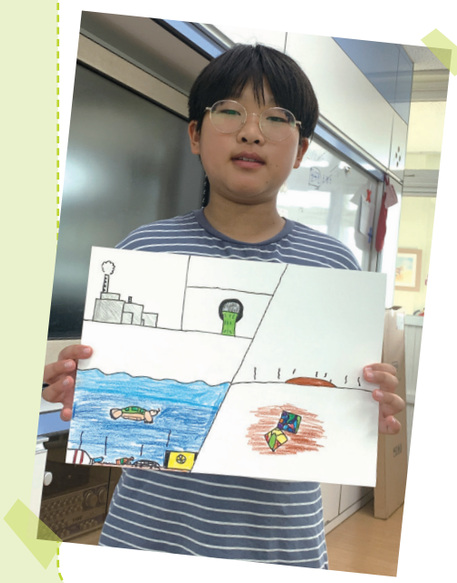
지구에는 멋진 산과 바다가 있어요. 사막뿐인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멋진 산과 나무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지구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산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에는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고, 산에 있는 나무는 지구의 공기를 더 깨끗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자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산이 오염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요.
저는 지구가 더 건강해지려면 산을 멋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아기 나무도 많이 심고, 쓰레기도 잘 치워서 지구에 있는 산들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산에 갈 때면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직접 주울 거예요!

지구를 지키는 경찰이 될래요! / 김현민

제 꿈은 경찰이에요. 호주에 큰 산불이 나서 숲이 많이 불타고 동물들도 아파했어요. 숲이 타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도 많이 나왔어요. 코알라의 90%가 죽어서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지구를 지켜주고 싶어요. 지구의 기후위기를 돕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플라스틱 멈춰! / 조영식



우리 집은 정수기가 없어서 물을 사서 마셔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마다 페트병이 쌓여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이 1950~2015년까지 63억 톤이 폐기되었다는 걸요. 이 중 79%가 산, 바다에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어요.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1/3이 플라스틱 병, 제품 포장재로 사용되는데요. 이로 인해 낭비되는 금액이 매년 무려 800~1200억 달러나 된대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연기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전 세계에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해야 해요.

모두 똑같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 최시온

저는 이번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HDPE를 찾아라'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플라스틱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HDPE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이라서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부한 HDPE 플라스틱은 친환경 소재 상품으로 재탄생하는데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고, 저의 작은 행동이 조금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요!



Story

들리나요?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통해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다양한 소리와 함께 "길거리 담배는 괴로워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 실 전화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의 소리를 들려줘 각 상황에 따른 아이들의 속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날, 코엑스 아셈광장에서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UN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이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환경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아이들의 목소리'라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배우 채정안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아동 대표 간니닌니(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브랜드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속마음 전화부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동 대표 간니닌니(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너무 기뻐요! 어린 나이에 데뷔한 저는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캠페인 홍보대사 배우 채정안



"대한민국이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기념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아이들의 정서·사회적 발달을 돕는

한화생명 '맘스케어 마음놀이' 사업을 소개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을 마냥 흐뭇하게 바라만 볼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맞춰 양육자의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데요. 시설아동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충분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서·사회적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한화생명에서는 시설아동들의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엄마의 마음을 담은 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인 '맘스케어 마음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맘스케어 사업의 시작

회사 동료들과 함께 '맘스케어 봉사단'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14년 100여 명의 회사 동료들과 의기투합해 찾아간 곳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일일 엄마'가 되어주는 보육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직후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달에 한 번 보육원에서 엄마의 손길이 부족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안아주고….

돌봄 활동이 점차 익숙해지던 어느 날, 보육원 아이들이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느리고, 놀이나 주변 자극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동발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서적 교감을 통한 '애착'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시설의 보육교사만으로는 충분한 상호작용과 교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육아정책연구소(20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명이 돌봐야 할 아이들은 4.2명이라고 합니다. 법정 배치 기준인 2명을 훨씬 초과하는 실정으로 턱없이 부족한 돌봄 손길은 저희 같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맘스케어 봉사단'은 봉사 현장에서 직접 깨달은 아이들의 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습니다. 봉사단원들의 단순 돌봄을 넘어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력해 아동발달 전문 선생님들을 보육원에 파견해 아이들과 주 2회 애착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화생명 '맘스케어 마음놀이'사업이란?

한화생명이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으로 시설아동들의 애착 부족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 및 폭력성, 언어 지연,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발달 전문가와 교수진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아동심리치료 사업입니다. 아동의 심리치료 뿐 아니라 아동을 돌보는 보육사를 위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인 아동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기에 형성되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아동의 전 생애 기간에 걸쳐 사회성, 인격, 두뇌 발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생후 36개월까지를 '정서적 골든타임'이라 하는데, 보육원에서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 시기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곤경에 처하면 엄마에게 달려와 안겨 위로를 받고 안전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밑거름을 다지기 위해 아이들의 정서적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시설보호아동을 위해 맘스케어 마음놀이 사업(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전문가를 파견해 그룹 놀이, 개별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들의 통합적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과정에 조기 개입해 아동양육시설 영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법정 비율 필수 이행 및 인력 증대 등 현장의 보육교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도 잊지 않고 있답니다. 각 분야의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보호아동의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더 나은 돌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맘스케어 마음놀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단단하고 건강한 마음의 힘을 쌓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시설보호아동을 위해 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맘스케어 마음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전문가를 파견해 놀이, 언어, 감각 통합치료를 지원합니다.

NEWS

일상의 비타민

일상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일상 인증샷!



@su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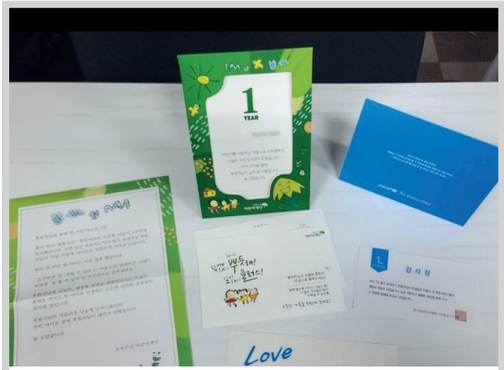
슈퍼투데이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후원한 지 1년 된 날입니다.
함께해주신 슈퍼투데이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슈퍼투데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슈퍼망토 #후원 #기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만나보세요!
@CHILDFUNDKOREA_OFFICIAL 지금 바로 Fo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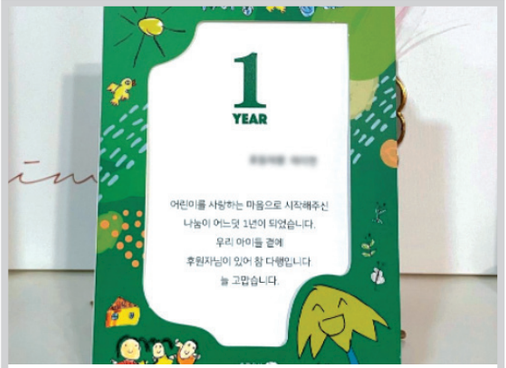
@swimming*****_kh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나눔을 실천 중입니다! 어느덧
나눔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수업과 케어에 더 신경 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 #나눔 #실천 #1주년 #어린이



@seung*****28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내 작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라면서 시작한 후원인데 1주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니 너무 뿌듯한 느낌이네요.
#후원 #초록우산 #기부금 #1주년 #나눔 #행복



@_***q_

봉사활동 다니기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지고. 후원이라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서
나름 시작했는데 벌써 일 년이네 ~ 나이 드니 착해지려고 하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 #봉사활동 #후원



@h*****0

이리 축하 메일이..
벌써 100일이더냐? 후원한 지가..
열심히 돈 벌자~!!!
#초록어린이재단 #후원하기 #후원스타그램 #돈벌자 #후원은사

GREEN NEWS

지역소식

경기아동옹호센터



유스그린키퍼 아동 ·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발표회 개최

11월 10일 개최된 〈미래에서 온(ON) 경고 '기후위기', 아동 · 청소년의 시선으로 말하다〉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아동 · 청소년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직접 토론에 참여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부산지역본부



2021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 개최

부산지역본부에서는 11월 12일 부산시교육청, 부산일보사와 함께 아이리더와 드림 멘토 후원자가 참여한 아이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5억원의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아이리더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궁컨설팅, 월 100만원 정기후원 약정식 진행

대전지역본부는 9월 1일 무궁컨설팅과 후원 약정식을 가졌다. 어린 시절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무궁컨설팅 송창호 대표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많은 아이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월 100만원 정기후원을 약속했다.



대전지역본부

리만코리아, 범죄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 기부

10월 5일 리만코리아는 범죄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대구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아이리더 사업을 비롯해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이번 후원금은 범죄피해아동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위한 긴급후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지역본부

페이퍼백 · 라미띠에 최선정 대표, '그린노블클럽' 합류

배우 이영하와 선우은숙의 며느리로도 알려져 있는 페이퍼백 · 라미띠에의 최선정 대표가 1억원을 기부하며 '그린노블클럽' 최연소 여성 CEO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최선정 대표는 그린노블클럽에 합류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많은 나눔을 실천하며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정 후원자 그린노블클럽

서울3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제2회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성료

경북지역본부는 11월 6일 경주후원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함께 '초록우산 가족사랑 어린이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행사 당일 아동, 학부모를 포함해 4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2지역본부



신세계L&B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으로 학용품 기부

서울2지역본부는 신세계L&B 임직원 400여 명과 함께 전국 그룹홈 아동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학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임직원이 직접 만든 DIY 가죽 필통, 학용품 17종 세트와 일부 임직원의 손편지를 아동에게 전달했다. 임직원들은 자원봉사활동 및 연말연시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북지역본부



신협사회공헌재단 '위드코로나 위드마스크' 후원금 전달식

전북지역본부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코로나19 백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KF-94 한지마스크를 지원하는 '위드코로나 위드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지역본부는 전주한지로 만든 마스크 41만4,400장을 전국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챌린저스 1호 김복수 후원자, 119 나눔 파파 찾기 성공

전남지역본부는 초록우산 챌린저스 1호 김복수 후원자와 함께 무연고 아동을 돕기 위한 정기 후원자 119명 개발에 도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초록우산 챌린저스란 자신이 속한 단체 및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전하는 후원자를 말한다.



전남지역본부

인천지역 발전사 및 한전연합, 인천경연초중학교 학교 숲 조성

인천지역 발전사 및 한전연합의 후원으로 11월 9일 인천경연초중학교에 학교 숲이 조성됐다. 학교 숲에는 연간 탄소흡수량 41kg, 미세먼지 10kg의 저감 효과를 지닌 스트로브잣나무와 자작나무, 목련나무, 관목 등이 식재됐다.



인천지역본부

세종후원회, '2021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

세종후원회는 11월 5일 '2021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산타원정대는 연말 저소득층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선물과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연말 캠페인으로, 세종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종 1호 산타'로 참여했다.



세종아동옹호센터&지역본부

본부소식



부모 역할과 가족 의미 되새기는 '완벽한 가족' 캠페인 시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한 신규 캠페인 '완벽한 가족'을 시작한다. '완벽한 가족' 캠페인은 알파세대가 당면한 이슈를 부모가 함께 해소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부모교육 확산 캠페인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족(부모)은 없다. 다만 노력하는 가족(부모)이 있을 뿐이다'라는 철학으로 노력하는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의 목소리 시즌1 〈아이 Got it〉 연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른의 고민은 어른들이 해결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어른과 아이가 소통하고 교감하며 서로 간의 소통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11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6회 연재한다. 취업, 친구문제, 워킹맘으로서의 고민 등 MZ세대부터 자녀를 둔 부모까지 다양한 고민거리를 상담해주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며, 108만 유튜버 마이린과 가수 겸 방송인 이특이 고민해결사로 나선다.

고액기부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300호 돌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통 큰 기부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이들이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이 300호를 돌파했으며, 누적 약정 금액은 약 564억원에 달한다. 그린노블클럽은 1억원 이상을 일시 또는 누적으로 기부하거나, 5년 안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는 후원자로 구성된다. 최근 일반인 후원자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BJ, 유튜버들의 가입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17년 송일국을 시작으로 2018년 최강창민, 2019년 방탄소년단 제이홉, 2020년 김유정이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 올해는 가수 청하, 김소연-이상우 부부, 방탄소년단 지민, BJ 양팡, 유튜버 허팝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GREEN
NOBLE
CLUB *for*
CHILDREN

2021 제20차 아동복지포럼 개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11월 11일 제20차 아동복지포럼 '톡톡, 아동권리'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 재단의 아동옹호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지혜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옹호활동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김정화 교수가 진행한 토크콘서트에는 재단과 함께 직접 옹호활동을 펼친 최서용 입법조사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병수 팀장(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 이범수 학생(서울효제초등학교), 김승현 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남 □여	영문명	* 해외 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 성명을 작성해주세요.
주민번호 앞 6자리		E-mail	
휴대폰 번호		집	
주소			

❶ 후원 영역에 체크해주세요. □국내후원 □해외후원

❷ 후원가입 및 금액에 체크해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기타( ) 원 □일시후원( )원

❸ 후원방법란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이체일 □10일	□20일 □30일

□카드결제

카드번호	유효기간(월/ 년)	카드 소유자명
카드 소유자 주민번호 앞 6자리( )		

※ 기부금 영수증 신청(후원자명으로 발급) □예(주민번호: -) □아니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본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으실 분은 1588-194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 서비스 **희망함** □문자(SMS) □우편 □이메일(정보란에 기재 필수) **희망하지 않음**□

* 후원자 서비스: 소식지, 연간보고서, 후원내역서

상기 내용과 같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 인 (서명)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와 전자금융 거래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세액공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24조(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손비인정)에 의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에 관련된 문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TEL. 1588-194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원회원가입 및 후원신청에 따른 결연 아동 및 후원금 집행 안내, 후원금 자동이체출금, 신용카드 결제 및 납부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주소, 성별 - 선택정보: 이름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자동이체정보, 카드결제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후원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단, 필요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됨.
4. 선택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기부금영수증(국세청 간소화포함) 발급, 후원정보 및 소식지 등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후원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 정보는 미입력 시 회원가입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소식 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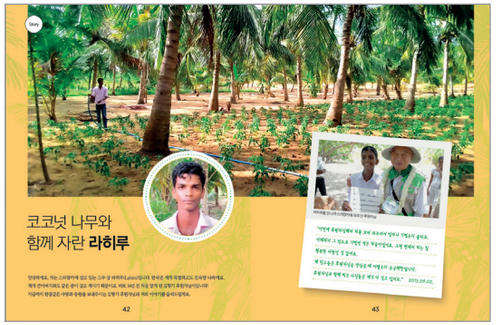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법정 대리인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전체) □*동의 거부 시 해당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리인 서명 (연락처)

전화(1588-1940)와 홈페이지(www.child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Review

READERS REVIEW



코코넛 나무와 함께 자란 라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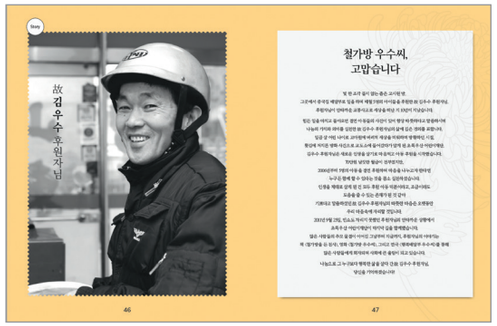
어렸던 라히루가 코코넛 나무처럼 멋지게 성장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라히루와 후원자님의 사연처럼 다른 후원자님들의 이야기도 만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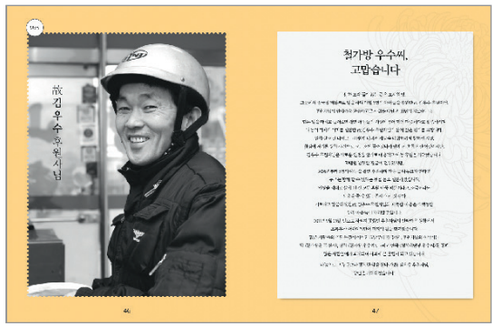
구하윤 후원자

철가방 우수씨,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린이와의 동행을 놓지않으신 故 김우수 아저씨를 존경합니다. 멋진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지훈 후원자





철가방 우수씨, 고맙습니다.

유용하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 후원자들의 일상적인 기부문화에 대한 소소한 사연들을 더 많이 듣고 싶군요.

정성호 후원자

QR코드로
독자 의견을 작성하세요.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해도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득 전해 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자님의 소중한 권리인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공제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후원자님의 정확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접속** → **나의 후원 (로그인 필요)** → **서비스신청/ 출력** → **기부금 영수증**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1:1 문의하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후원 상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후원자님은 홈페이지 1:1 게시판, 또는 어린이재단 대표번호 1588-1940(상담시간 평일 9:00-18:00)으로 직접 전화해주세요.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

기부장려금 제도 안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부장려금 단체'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게 될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다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후원자님께서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